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25호 【루게 제25634호】 주제 106 (2017)년 5월 5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서남전선수역 최남단에 위치한 장재도 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서남전선수역 최남단에 위치한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인민무력성 제1부상 육군대장 서훈찬동지, 조선인민군 포병국장 육군상장 박정현동지, 조선인민군 제4군단장 육군상장 리성국동지, 정치위원 육군소장 리영철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인 오일정동지, 조용원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현지에서 방어대의 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또다시 모시는 방어대들에서는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를 게양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맞이한 방어대의 군인들과 군인가족들은 멀고 험한 자기들의 섬초소에 찾아오신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러 걱정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장재도방어대의 감시소에 오르시며 육안으로 뚜렷이 보이는 연평도를 바라보시면서 박정현 포병국장으로부러 남조선괴뢰군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최근적정과 새로 증강배비된 연평부대의 현황상태를 보고 받으시고 새로 조직한 야군의 적대성을 화력리격계획을 료해검토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서남전선을 지키고있는 조선인민군 최정예포병집단은 고도의 격동상태를 유지하고있다가 일단 명령이 내리면 돌라닥질거리는 피뢰침의 사용법을 완전히 분별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화력진지들과 포연배부들을 돌아보시며 경성적인 전투동원상태를 료해하시였다.



러 한결없이 반돌반돌 검은 윤이 나는 포무기의 바퀴를 만져보시며 강도높은 훈련을 하면서도 포무기관리를 정말 잘했다고, 이곳 방어대군인들의 애국심을 느낄 수 있다고, 정말 기뻐하고 정이 더 폭 든다고 하시면서 전군에 널리 소개선전하고 따라배우게 하라고 말씀하시였다.

군인들은 무기, 전투기술기재들을 자기의 눈동자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총대를 조국수호, 조국통일대전의 길을 함께 달려갈 길동무, 혁명전우로 여겨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장재도방어대에 새로 꾸린 바다물정제기설을 돌아보시며 담수생산과 공급상태를 료해하시였다.

섬방어대들의 물문제를 두고 늘 마음 쓰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은정

깊은 조치에 따라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에 현대적인 바다물정제기설이 훌륭히 꾸려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바다물 취수구를 통해 끌어올린 바닷물이 터파랑크, 저장랑크, 정제수랑크, 정제기를 거쳐 맑고 시원한 담수로 전환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시간당 생산량이 대단하며 군인 일인당, 군인가족세대당 공급되는 량도 풍족하다고 하시면서 섬초소군인들이 물걱정없이 생활하게 하려면 소원이 풀렸다고 격정에 겨워 말씀하시였다.

군인들과 군인가족들이 물이 정말 시원하고 막 달다고, 우물을 리용할 때와 달리 두부도 잘되고 밥맛도 좋은뿐만아니라 배탈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기분이 좋고 막 날것만 같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장재도방어대의 병영과 식당, 새로 꾸린 남새온실과 축사를 돌아보시였다.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장재도방어대가 더 멋있어졌다고, 몇해사이야 푸른 섬으로 변모되었다고, 특히 당에서 품들어 꾸려준 병실들과 살림집들을 깨끗이 관리하고 주변환경정리를 잘하고있다고 만족해하시였다.

강질유리를 띄운 남새온실에 온실환경 종합측정장치를 설치하여 생산을 과학적으로 진행하고있는것이 마음에 든다고, 면적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도마도, 오이, 호박, 파, 전채 등 갖가지 남새를 가꾸고 있는데 흐뭇하다고, 닭들이 채를 치고 살쩍 떴지, 토끼들이 우글거리는 모양이 정말 볼만 하다고, 병영주변의 곳곳에서 팽주리식감자농사도 짓고있는데 섬초소

에 생활이 있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부업선으로 잡은 물고기를 보시고 이만하면 섬방어대 군인들의 생활에 대해 마음이 놓인다고 하시면서 물에서 복무하는 군인들까지도 섬방어대 군인들을 부러워한다는데 그럴만하겠다고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장재도방어대의 군인들, 군인가족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어 무도영웅방어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감시소와 포연배부, 공화국영웅 칭호를 수여받은 1포진지를 돌아보시면서 전투근무실태를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무도영웅방어대에는 우리를 향하여 무모한 포사격을 강행한 남조선피뢰침정찰대의 침략도발책동을 무자비한 불소나기로 짓통개버림으로써 연평도불바다와 더불어 원수들에게 조선인민군 포병의 본대를 보여준 자랑이 깃들어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연평도포격전은 정전이후의 가장 통쾌한 싸움이었다고, 무도영웅방어대 군인들의 위훈은 우리 당력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갈 빛나는 군공이라고 하시면서 새로 입대한 군인들은 자랑찬 위훈의 바통을 굳건히 이어받아 앞으로의 싸움에서도 영웅방어대의 본태를 다시금 과시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지난 3월에 진행된 전국적인 포사격경기에서 무도영웅방어대 1포가 단연 1등을 점취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앞으로도 전군의 앞장에 서라고 고무 격려해주시면서 영웅포를 배경으로 포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